전쟁의 뒤안길에서[1)]

서 상 욱[2)]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평가연구팀

남쪽 DMZ 한계선을 통과하여 한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나누어 주던 벤하이강으로 가는 길. 아침 7시에 탑승한 관광버스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도심을 이동하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전체 인구수에서 어린 아이의 수만큼 뺀 오토바이이다. 신호등도 없다. 자동차 차선은 있으나 그 기능을 다하진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하루에 33명이다. 무질서속의 질서..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귀를 따갑게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빵빵~". 그 속을 뚫고 도심을 빠져나간다.

처음으로 우리 눈에 비친 전쟁의 흉터는 하엔르엉교이었다. 이 다리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연결하는 다리로 75년 이전에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교각의 북측은 빨간 색, 남측은 노란 색으로 칠하였다. 지금은 건널 수 없지만 교각 인근에는 북측과 남측의 국기계양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국기계양대의 높이도 서로가 경쟁을 하듯 한쪽

1)Into the Mists of the War

2)SUH, Sang Uk, Ecosystem Assessment Division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mail: sanguk07@korea.kr

이 5 m를 높이면 반대쪽은 다시 5 m를 높이고 이를 반복하여 게양대의 높이가 40 m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북측의 게양대만 남아 있었다.

다시 관광버스는 1번 국도, 일명 자유의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지금은 자유의 고속도로라 불리지만 과거에는 비운의 고속도로라 불렸다. 수많은 이들이 이 고속도로를 좌우로 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들은 좌우로 펼쳐진 농경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지금의 한가로운 농경지의 모습은 태국을 이은 전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쟁이 지나간 지 3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농경지 중간 중간에는 폭탄이 투하되었던 폭탄분화구(bomb crater)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 대부분 물이 고여 있으며 일부 깊은 분화구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작 메워져 작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베트남은 그 흔적을 보전하며 그 때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라는 의도가 배어 있는 듯하였다.

군데군데 파여 있는 아스팔트를 흔들리며 달리는 관광버스에서 가이드는 베트남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베트남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중국이 침입하여 투쟁하고 그 뒤를 이어 몽고 그리고 프랑스, 일본, 마지막으로 미국에 이르기까지. 살아남기 위해…”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듣는 듯하였다.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단일민족을 이어온 우리의 역사말이다.

가이드는 베트남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듯 강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40여 년 전만해도 베트남인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다. 단지 자신의 마을과 친구를 공격하는 미군을 막기 위하여 총, 칼을 들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미망인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재혼하지 않고 남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족을 떠나보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혼자서 지키면서 철제 등을 모아 근근이 수집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물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61년 전 단지 북쪽에 살고

있기에 또는 남쪽에 살고 있기에 서로 총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듯하였다. 길가에 초라한 집을 보면서 어쩌면 저 집에도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는 아낙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다.

비운의 고속도로, 아니 이제는 자유의 고속도로를 따라 차창 너머로 긴 산등성이가 보이지만 그 능선 부위는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능선의 편평한 부분은 거의 모두 미군 기지이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미군은 시야확보를 위해 능선부 모든 식생을 네이팜 등으로 불태웠다. 그리하여 베트남의 수많은 정글이 파괴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의 능선은 민둥산이 된 것이다. 또한 10 km가 넘는 전기펜스를 설치하여 남북의 왕래를 막았다. 심지어 조그만 쥐의 이동마저도. 지금은 전쟁 후 다시 고무나무와 뽕나무 등이 식재되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드디어 후에로부터 2시간을 달려 처음 차를 세운다. 그곳은 록파일이었다. 록파일은 해발 230 m로 사면이 급경사로 이루어진 봉우리로 미군의 포병기지가 위치하였던 곳이다. 이 지역은 북쪽과 남쪽의 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과 베트남군 모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었다. 급경사로 베트공의 접근도 힘든 지형이었지만 미군의 군수물자 이송도 불가능한 지역이었기에 모든 군수물자는 헬기로 운반되었다.

가이드가 단호한 어조로 미군 수천 명을 사살한 전장이며 미국 정부는 너무 공격적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록파일을 되찾은 기념으로 베트남 국기가 정상에서 높이 나부끼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보듬으며 차에 올라 다음 도착한 곳은 다크롱교이었다. 이 다리는 호치민 루트와 연결된 다리로 미군은 이 다리에서 호치민 암살을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리를 건너 17 km를 더 가면 그 유명한 햄버거힐에 도달한다.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진 햄버거힐, 너무나도 많은 미군 사상자가 쌓이고 쌓여 마치 햄버거와 비슷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라며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가이드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햄버거힐에서 쓰러져간 어느 이름 모를 미군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아들이었을 텐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서있는 강 주변에는 그 당시의 아픔을 뒤로하고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다크롱교 삼거리에서 햄버거힐로 가는 코스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관광버스는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 앞에 차를 세웠다. 베트남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차를 세운 곳은 라오족이 거주하는 마을

로 이 조그만 마을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아마 이들도 전쟁 당시 민족해방전선 또는 미군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방패막이로 앞장서도록 강요받았을 지도 모른다. 이들의 집은 지상으로부터 1 m 정도 위에 지어진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갈, 뱀 등과 같은 곤충과 동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집 밑의 공간에는 가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4,000여명이 남아있는 이 부족은 생존을 위하여 2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며 5명 가량의 아이를 낳는다 한다. 자신의 종족 유지를 위한 방책이라 한다.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듣는 동안 2-3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목욕을 하다 빨게 벋은 상태로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다. 꼬마들은 조막만한 손을 벌리며 one dollar를 외쳤다. 몇 년전 방문하였던 캄보디아의 빈민촌에 사는 아이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고무 다라이를 타고 강을 건너와 내밀던 바로 그 손이었다. 전통마을 방문시 요금을 내어 주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면 그 아이들의 빈손을 보며 뒤돌아서야 했던 우리가 조금은 덜 민망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비교적 정비가 잘 된 도로를 지나 관광버스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도착한 곳은 케산 전투기지로 미군의 비행장이었다. 바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의 하나인 케산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베트남군은 산위 건설된 미군 케산 전투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DMZ 일원을 점령한 후 이 기지를 고립시켜 섬멸하려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벤하이강을 따라 능선의 고지마다 위치한 미군 기지들은 항공망을 이용하여 모든 군수품을 지원받았다. 케산 전투기지 역시 잘 갖추어진 미군의 항공망에 의존하여 충분한 군수품을 갖추고 산위에서 베트남군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 베트남군은 1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게 되며, 결국 미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 내세워진 것은 창과 활을 든 소수민족이었다. 미군도 베트남군도 이 케산 전투기지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건 이곳이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지속적인 공세에 미군도 포기할 수 없어 벤하이강 인근의 지원병력이 케산기지로 집결하게 된다. 이때를 놓지지 않고 베트남군은 남서쪽으로 돌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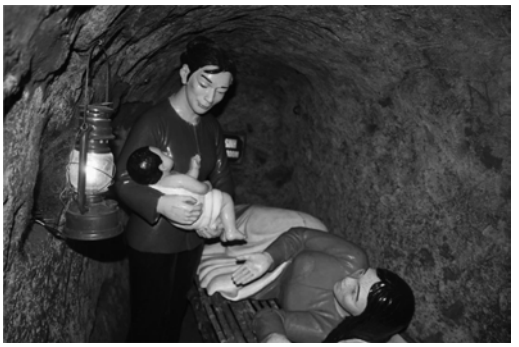
부 베트남을 공격하고 결국 미군을 베트남 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가 된다.

케산 전투의 승리를 기념한 기념관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베트남 지도였다. Hue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달려온 행적을 볼 수 있는 지도였다. 우리가 지나온 고속도로 주변 산능선에는 어김없이 미군 주둔기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기념관 밖에는 전투시 격추시킨 미군의 헬리콥터와 파괴된 탱크 등이 흉물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 헬리콥터와 탱크 안에서 그 당시 군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전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자 콧등이 시큰거렸다. 그 당시 군인들의 아픔과 흘린 눈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름 모를 흰 꽃이 전장위에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케산기지를 뒤로하고 향한 마지막 DMZ 트래킹의 목적지는 빈목터널이었다.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터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호치민 트레일이라 부른다. 호치민 트레일은 전쟁기간동안 남북 베트남을 잇는 군수품과 병력 등을 이동시키기 위한 터널로 이 중 빈목터널은 DMZ를 통과하기 위한 지하터널이다.

6, 300, 17. 이 세 숫자는 빈목터널을 대변하는 숫자이다. 6년간 300명이 미군의 폭격을 피해 지하터널을 파고 들어가 그 어두운 터널에서 생활을 한 것이다. 터널은 높이 150 cm에 폭 100 cm 정도로 17 0cm인 필자도 바로 서지 못하고 터널 양 끝은 두 어깨와 친구하자며 바로 옆으로 다가올 정도이었다. 비교적 체구가 적은 베트남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미군의 경우 터널을 찾아도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장기간 생활을 위해 3층으로 구성된 터널은 지하 1층은 수송로 사용되었으며, 지하 2층은 우물 등 편의시설이 있어 비교적 넓은 미팅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 3층은 대피소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곳에서 촛불로 생활을 하며 곳곳에 화장실 및 환기구도 설치하였다. 건장한 성인 남자 1명이 두 다리 뻗고 눕기도 힘든 그 좁은 공간이 한 가족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암흑의 공간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났다. 바로 17이 그 마지막 숫자이다. 17명.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숫



자이었다.

이러한 터널이 베트남에는 수백이 넘으며 이 중 일부는 물자수송을 위한 지하터널이었다 한다. 단지 호미와 소쿠리로 만들어낸 터널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가이드 없이 터널에 들어가면 열에 아홉은 길을 잃는다 한다.

간혹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미군도 종종 찾아온다 한다. 그들은 이러한 터널 네트워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때의 치열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고 한다. 각국의 참전용사들이 지금은 노년이 되어 만나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그때 미안하였다 하며 눈물을 머금고 한다고 한다. 이 말에 필자로 눈이 촉촉해 졌다.

현재 대부분의 터널은 비공개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분만이 공개되었다 한다. 베트남이 독립국가로서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이 없을 때 모든 터널이 공개될 수 있을 거라 가이드는 설명한다.

DMZ 트래킹을 마치고 다시 후에로 돌아오는 길은 석양이 지면서 쌀이 영글고 있는 논 위를 비추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종종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논 가운데에도, 주택가에도. 전투에 승리한 곳이면 어디든지 동상을 세워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쟁취한 해방을 기념하고 있었다. 곳곳에 보이던 빨간 국기와 동상들은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DMZ와 비교하여 전쟁 후 36년이 지난 베트남의 DMZ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MZ 트레킹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다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DMZ 트래킹이라는 이름보다는 베트남의 투쟁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전쟁이 끝난 36년이 지난 마당에 베트남 DMZ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제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라는 의식이 더 지배적이기에 DMZ가 가지는 의미는 투쟁의 역사를 머금은 곳이며 민족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인 것이다. 이제 우리도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50여년 동안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우리의 DMZ를 어떻게 보존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